



[뉴스] 소주·삼겹살·유가 월급빼고 다 올라 서민물가 비상 02



Economy

코스피	2176.99 (-19.33)	코스닥	753.45 (-8.37)
금리 (국고채 3년)	1.72 (-0.02)	환율 (원·달러)	1166.50 (-3.50) (7일)

#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8곳에 11만호 짓는다

## '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계획

고양시 창릉동에 3만8000만 가구 330만㎡ 규모 녹지·호수공원 조성

부천시 대장동에 2만 가구 공급 30만㎡ 규모 멀티스포츠펀터 건립

서울·경기 택지도 5.2만가구 공급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수도권 2곳에도 제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두 곳을 합쳐 총 5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규모는 판교신도시(약 3만가구)의 2배 수준이다. 신도시 외에도 서울, 경기도 일대 26곳의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5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2곳과 중소규모 택지 개발 26곳 등 28곳, 11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관련기사 3편>

이번 3차 공급계획은 지난해 9월 수도권 택지에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1차, 3만5000가구와 12월 2차, 15만5000가구 등 30만 가구 가운데 19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나머지 11만 가구 공급을 위해 3차 택지 계획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등이었다.

3차 공급계획에는 고양시 창릉동 813만㎡에 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 343만㎡에 2만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창릉동의 경우 서울에서 1km 거리로 가깝고 대장동은 서울에 연접해 있다. 창릉동은 135만㎡를 자족용지로 판교 테크노밸리 약 3배 규모를 조성한다. 또 330만㎡ 규모의 공원 및 녹지, 호수공원도 조성한다.

대장동에는 판교테크노밸리의 1.4배 수준인 68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한다. 더불어 100만㎡를 공원과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펀터도 건립한다. 이와 함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만20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경기도 안산 장상동(신안산신선철역) 일원, 용인구성역(분당선구성역·GTX-A 신철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안산신길2구역, 수원당수2구역 등에 4만2000가구 규모의 중규모 택지도 조성한다. 이 가운데 안산 장상 택지 조성 후보지는 신안산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지하철역·광장 시설 등도 이뤄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시장은 하향안정세지만 오랜 기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社告

## 메트로신문이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이 경력직 언론계 주인공을 찾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창간 이후 지난해 3월 국내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한 메트로신문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metro(메트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지난해 3월부터 관공서와 기업 독자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유료신문인 '메트로경제'를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17년 역사의 메트로신문과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경력기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법조·증권·부동산·데이터소싱 부문 취재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② 모집인원: 0명

③ 응시자격: 해당 분야 경력 3~7년 사이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지원서에 사진부착)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기명기사 3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 원서접수

① 기간: 2019년 4월23(화) ~5월9일(목) 오후 6시까지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9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전화 02-721-9826)



## 환율 2년4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

# 격해지는 美·中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韓

## 트럼프 "대중 관세 25%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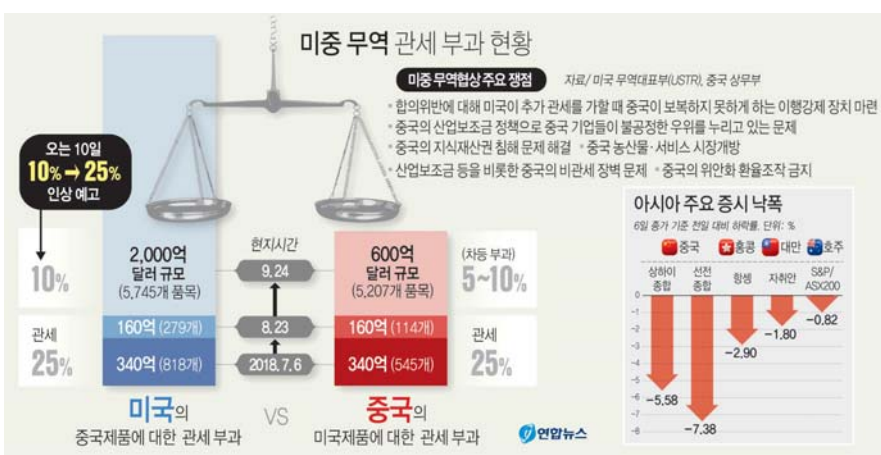
## 韓·中 등 세계 금융시장 요동

## 이주열 "불안할 상황 아니다"

이번주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급변전하면서 국내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압박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중국 증시는 급락했고 중국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중 무역협상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중국과 밀접한 우리나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코스피지수는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4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찍었지만 장 막판 3.5원 내린(원화값 상승) 1166.5원에 마감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지난



5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약 234조원)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여기에 그동안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나머지 중국산 제품 3250억달러(약 380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곧 25% 관세를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가 관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 **트럼프 발언에 요동치는 금융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부

과 발언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은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증가 기준으로 5.58%, 선전종합지수는 7.38% 급락했다. 홍콩 항셱지수도 2.9% 하락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6일 사이 홍콩(-2.45%), 중국 상해(-5.58%), 유로(-1.13%), 독일(-1.

44%), 스탠다드앤푸어(0.45%) 등 주요 국 증시가 모두 떨어졌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6분 경 1173.7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7원 상승해 2017년 1월 9일(1177.60원) 이후 처음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3일 증가 기준 1170.0원을 기록하며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증가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3.5원 내린 1166.5원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33포인트(0.88%) 내린 2176.9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다 소폭 회복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값 급락)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증시도 불안해진다. 외국 자본이 투자 이익을 회수할 때 환차손을 우려해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증가 기준)이 달러당 1140원대를 넘어선 4월 22일 이후 선물시장에서 8거래일 중 5

거래일간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0.92% 하락했다.

## ◆ 이주열 "불안해할 상황 아냐"…이번 주 고비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재부각됐으나 현재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이날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가운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안정화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언은 오는 8~10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다만 향후 시장 변화는 ▲이번 주 중국 협상단의 미국 방문 여부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지속 여부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 등에 달려있다는 진단이다. /김희주 기자 hj89@